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느낌에 대해서는 '도움 줄 것을 찾는다(32.2%)', '동정심이 든다(31.1%)', '아무 느낌이 없다(17.3%)', '비장애인과 같다(9.9%)', '모른 척 하고싶다(5%)', '무섭다(4.5%)' 순을 차지했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차별

장애인들을 보는 편견 섞인 시선 때문에 많은 차별을 겪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전남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 , 경남 통영의 ‘양식장 노예 사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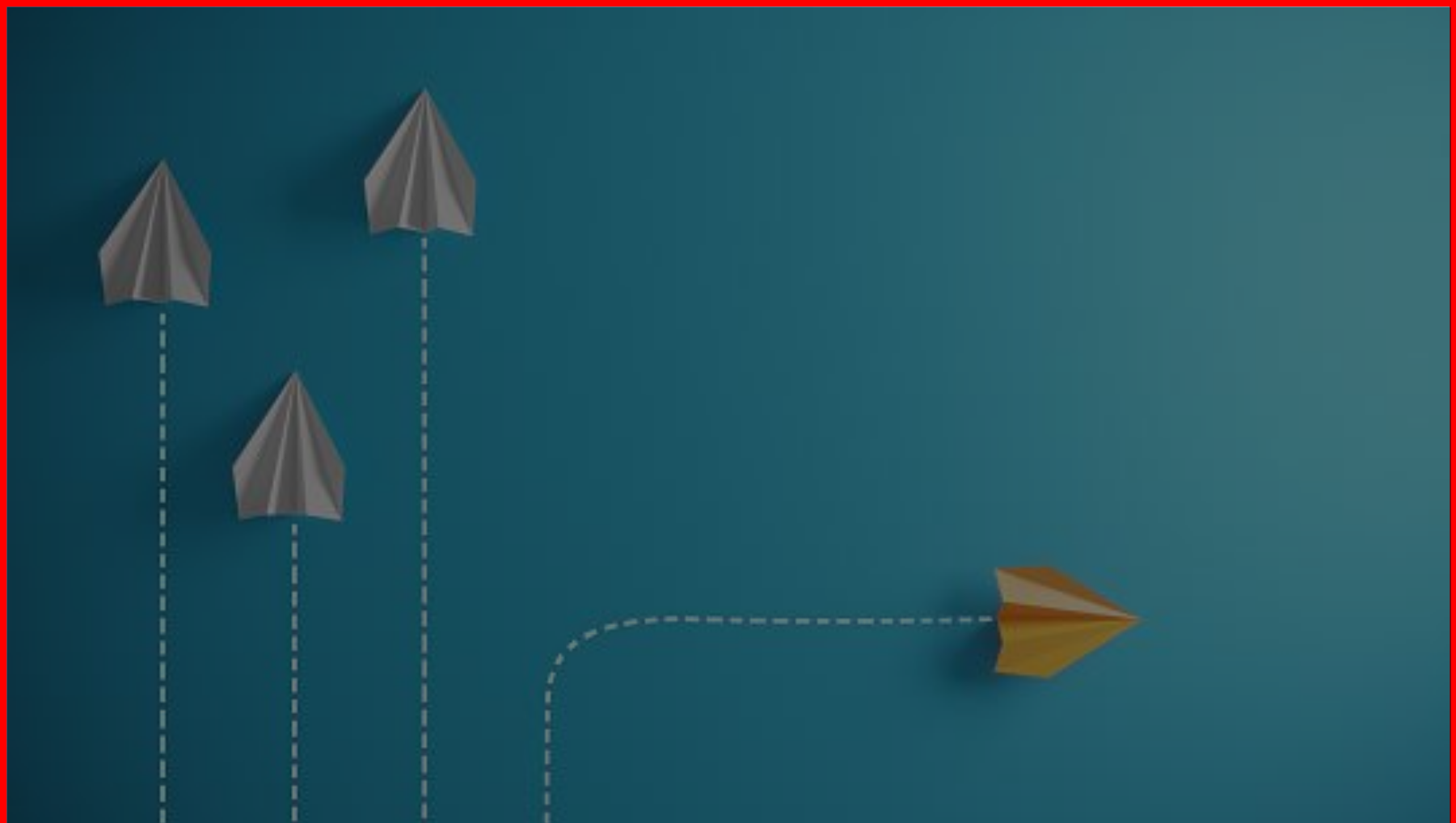
이와 같은 큰 사건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임금을 적게 준다’ , ‘시설에 내맡겨

지거나 집에 방치된다’ , ‘대학 입학을 거부당한다 ‘ 등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있다. 가장 먼저,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도 기본권이 있다.
그리고 차별은 어떤 이유에서든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받는 장애인
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 실시’ , ‘실제 장애인 체험을 하거나 장애인 강사를 모시기’ 등으로 인식 변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